

# 제약기업, R&D보다 판촉에 몰두

연구개발비 매출액의 5.85% 불과 ... LG생활건강은 27.56%로 활발

국내 상장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아 스스로 제약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11월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(한나라당)에게 제출한 <상장 제약기업의 광고선전비 및 R&D투자 규모>에 따르면, 2006년 국내 34개 상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(R&D) 총액은 전체 매출액(5조9030억원) 대비 5.85%에 불과한 3451억원에 그쳤다.

광고선전비를 포함한 판촉추진비용 4816억원(전체 매출액대비 8.16%)보다 적은 것이다.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과 영업에 몰두한 것으로 분석된다.

특히, 매출액 상위 10개 제약기업 중에서 무려 8곳이 R&D 보다 판촉비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2006년 상장 제약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는 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3개 제약기업은 접대비가 R&D 투자금액보다도 많았다.

2006년 전체 상장 제약기업 중에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7.56%를 기록한 LG생명과학으로 국내 제약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0%를 초과하는 유일한 제약기업으로 나타났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11/01>